

2023년 캄보디아 주간(1.28-2.3) 경제 동향

[경제]

□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, 한-캄 FTA 이행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포럼 개최

-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1.27.(금). 서울시에서 한-캄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 촉진을 위한 한-캄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함.
 - 동 행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,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, 주한 캄보디아 대사, 뽀소라삭 상무부 장관과 속전다 소피어 캄보디아개발위원회(CDC) 등 주요인사가 참석함. (Khmer Times 1/30. 13면)

□ 3대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 2022년 캄 전체 수입의 61% 차지

- 캄 관세청의 보고서에 의하면, 2022년 캄보디아의 3대 수입국인 중국, 베트남, 태국은 2022년 캄보디아 전체 수입액의 60.94%를 차지하였으며, 총수입액은 182.45 억으로 전년 대비 약 11.99% 증가함.
 - 2022년 캄보디아의 수입액은 299.42 억 달러로 2021년 대비 4.32% 증가,
 - ※ 국가별 對수입통계 : 중국 104.46 억 달러로 2022년 전체 수입액의 34.89%를 차지(전년 대비 7.86% 증가), 베트남 39.67 억 달러로 2022년 전체 수입의 13.25% 차지(전년 대비 26.20% 증가), 태국 38.33 억 달러로 2022년 전체 수입의 12.80% 차지(2021년 대비 10.66% 증가) (Phnom Penh Post 1/30. 1면)

□ 관광부, '관광산업 회복에 3-4년 소요 예상'

- 관광부의 '양 소반로앗' 관광개발 및 국제협력 부국장은 캄보디아의 관광산업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 3-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.
 -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약 7 백만 명에 이룸. 한편 2020년에는 130 만 명, 2021년에는 약 20 만 명 미만으로 급감. 2022년에는 약 228 만 명 수준으로 회복
 - 한편, 2023년에는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의 캄보디아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(Phnom Penh Post 1/31, 5면)

□ 2022년 자전거 수출 약 9.7억 달러

- 캄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캄보디아의 자전거 총 수출액은 9.67 억 달러로 2021년의 6.31 억 달러 대비 48.5% 증가함.
 - 주요 수출시장 : 미국, 독일, 영국, 일본, 중국, 아세안 등
 - 캄보디아는 중국, 대만, 네덜란드,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자전거 수출국임. (Phnom Penh Post 2/3, 16면)

□ 2022 년 신규 등록 기업 1 만여개

- 2022 년 캄 상무부에 신규 등록한 기업의 수는 10,701 개로, 이는 2021 년의 7,677 개 대비 39.4% 증가한 수치임.
(Khmer Times 1/31, 14 면)

□ 싱가포르 기반 싱크탱크, 미국·EU 의 경제 둔화로 인한 캄보디아 의류 수출 우려

- Jayant Menon 싱가포르의 유습이삭연구소(ISEAS-Yusof Ishak Institute) 소속 선임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, 세계은행(WB)이 1.11.(수).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, 2023 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.5%로, EU 는 0%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, 캄보디아 의류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·EU 의 경제 성장 둔화가 올해 동 업계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.
 - 캄보디아 정부에 의하면, 2022 년의 의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.5% 증가했고, 경제재정부 정책국의 2022-23 캄보디아 거시 경제 상황 보고서에서는 불리한 외부의 수요, 특히 EU 의 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 분야 특히 의류 수출의 성장은 5.5%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.
(Khmer Times 2/1. 15 면)

□ 2022 년 수출입 통계

- 2022 년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액은 524.25 억 달러로, 전년 대비 역 1.19% 증가함.(캄 관세청 통계)
 - 캄보디아의 총 수출은 224.83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.44% 증가, 총수입은 299.42 억 달러로 전년 대비 4.32% 증가(무역 적자는 74.59 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.60% 감소)
(Phnom Penh Post 2/1. 1 면)

□ 훈 센 총리, 국세청 2022 년 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축하

- 훈 센 총리는 2022 년 연간 세수 목표액을 22.54% 초과 달성한 국세청(GDT)의 공 비불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함.
 - 1 월 초 공개연설에서 훈 센 총리는 2022 년 GDT 의 연간 세수 목표액 이 28.1855 억 달러였으나 최종적으로 34.55 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힘.
 - 2.1 일반에게 공개된 축하서한에서 훈 센 총리는 2022 년의 세수 목표 초과 달성이 코로나 19 팬데믹, 전세계적 지정학적 긴장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초래된 전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경제 발전과 캄보디아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한편, 2023 년의 세수 목표액(35.71 억 달러) 달성을 위해 세금 징수 프로세스 기술을 개혁하고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힘.
 - (경제재무부, 비공식 경제 부문 정책 강화 계획) 한편, 경제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, 캄보디아 정부는 비공식 경제 부문(미등록 사업자=시장 소매업자, 커피숍, 음식점, 전화기 판매점, 개인택시, 채소판매점 등)강화를 위한 경제정책(공식 사업자 등록 등)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며, 동 조치로 인한 세수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힘.
(Phnom Penh Post 2/2, 1 면)(Khmer Times 13 면)

□ 훈센 총리, '차기 정부 농업 정책 강화 약속'

- **속 에이산 국민당(CPP) 대변인**은 1.28-29 양일간 개최한 국민당 임시 총회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(1.29)에서 “**훈 쎌 총리가 국민당(CPP)이 제 7 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에 수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농산물 증개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하고, 관련기관들에게 7 대 임기에서 이행할 농업 부문과 관련된 핵심 전략들을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**”고 밝힘.
(Phnom Penh Post 2/2, 8 면)

□ SEA Games 선수촌 3 월말까지 완공 예정

- **똌 쩌라**은 캄보디아 SEA Games 조직위원회 및 캄보디아 국가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은 SEA Gams 및 아세안 장애인경기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**띠어 반** 국방부 장관이 ‘2023 SEA Games(5.5-5.17)’과 ‘아세안 장애인경기(6.3-6.9)’에 참여하는 약 7 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을 위한 선수촌 건립을 3 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.
- 한편, 선수촌 건립 비용은 정부와 자선사업가들의 지원으로 추진한다고 말함.
(Khmer Times 2/2, 3 면)(Phnom Penh Post 5 면)

□ 훈 쎌 총리, ‘올해 외국인 방문객 3-4 백만 명 전망’

- **훈 쎌 총리**는 2.2(목) 공개행사* 연설에서 올해 4 월의 캄보디아 전통절과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5 월의 동남아시아 게임(SEA Games)과 6 월의 아세안 장애인 경기 등 주요 행사가 많아 3 백-4 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.
* 2021-2022 년도 12 학년 졸업 시험 우수(A 등급)득점자들과의 만남
- 2022 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약 228 만 명으로 전년 대비 1,059% 증가. 이 중 아세안국가가 70.4%*로 전년 대비 1,252% 증가
* 국가별 - 태국 37.5%, 베트남 20.4%, 라오스 4.1%, 인도네시아 3.3%, 말레이시아 2.4%, 필리핀 1.3%, 싱가포르 1.2%
- 아세안국가 이 외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 10.7 만 명의 중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아세안 이 외의 국가별 순위에서 1 위(4.7%)를 기록.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중국인의 연간 방문객 수는 약 2 백만 명. 코로나 19 관련 입국규제가 없는 캄보디아는 올해 최소 백만 명의 중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
(Khmer Times 2/3, 13 면)

□ 캄보디아, 최빈국(LDC) 탈퇴 대비 관련

- **온 뽀모니**로얏 경제재정부 장관은 상무부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캄보디아가 최빈국(LDC)을 탈퇴할 것에 대비하여 탈퇴할 경우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관련 준비를 강화할 것을 상무부에 요청하는 한편, LDC 상태를 탈퇴할 경우 대캅 무역 관세 특혜 및 국제 원조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캄보디아가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- RCEP 및 한국과 중국과의 FTA-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함.
- 경제재정부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LDC 상태 종료 유무에 대한 유엔개발정책위원회의 차기 평가는 2024 년(3 년마다 실시)에 실시되며,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27 년에 발효됨.
(Khmer Times 2/3, 1 면)

□ 훈 쎌 총리, 12 학년 졸업시험 남녀 합격자수 큰 격차 원인 분석 지시

- 훈 센 총리는 2.2(목) 2021-2022 년도 12 학년 졸업시험*(/대학 응시 자격시험)에 우수(A 등급)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약 천여 명과의 만남에서, 졸업시험 합격률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78%, 22% 로 크게 격차가 난 원인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, 교육부에 동 문제에 대한 검토 및 해결책 모색을 지시함.
- * 응시생 약 12 만명 중 약 9 만 명이 합격하여 72.33%의 합격률을 보임.
(Phnom Penh Post 2/3,1 면)

[대외 협력]

□ 키우 삼판 전 크메르루즈 국가 수반, 견달주 교도소에서 종신형 복역

-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(ECCC)는 2.1 보도자료를 통해 키우 삼판(92 세)* 전 크메르루즈 국가 수반을 종신형 복역을 위해 견달주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발표함.
 - * 2011 년 유엔이 설립한 ECCC 에 의해 정식 기소된 전직 크메르루즈 고위지도자 4 인*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박해, 제네바 협약 위반, 반인도적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된 첫 번째 재판(Case 002/01)*과 두 번째 재판(Case 002/02)***에서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음.
 - * 누온 찌어 전 국가주석은 2019 년 93 세에 노환으로 사망, 이웅 사리 전 외무부 장관과 이웅 티어리웃 전 사회부 장관은 재판 도중 병사
 - ** 2011 년 11 월-2013 년 7 월 재판 진행, 2014 년 8 월 종신형 선고, 2016 년 11 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
 - *** 2014 년 11 월-2017 년 7 월 재판 진행, 2018 년 11 월 종신형 선고, 2022 년 9.22 대법원이 종신형 확정(재판 도중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누온 찌어 전 국가주석은 2019 년 8 월에 사망)
- (Phnom Penh Post 2/2, 1 면) + 추가

[코로나 19 동향]

□. 신규 확진 및 사망

- 7 일(1.28.-2.3)간
 - 신규 확진 : 총 12 명 (*1 일 평균 1.7 명)
해외 유입 0 명
 - 사망 : 0 명
- 2023.2.3.(금) 오전 기준
 - 누적 확진 : 138,695 명(해외유입 21,244 명)
 - 누적 완치 : 135,628 명
 - 누적 사망 : 3,056 명

(캄 보건부 SNS 2.3)